

남원시정 현안 챙기기 분주

이환주 시장, 전기열차 토론회 참석·행자부 차관 면담 등 일정 소화

이환주 남원시장이 26일 시정 현안 사업 챙기기에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 시장은 먼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국정 과제 추진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토론회에서 "소음·매연·분진·로드킬로부터 지리산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반권 확보차원에서 친환경 전기열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을 방문, 전북 등부권 지역 최초로 조성되는 사제일반산업단지 사업과 관련, 2017년도 미확보액 30억원과 노압농공단지·서남원 IC 연결도로 확보장 부족분 13억원을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특별교부세 요구사업은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 교통망 확충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향상시켜 입주업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찾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와 국립지류농업원 조성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속히 추진하여 줄



이환주 남원시장이 26일 시정 현안사업 챙기기에 바쁜 일정을 보냈다.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어, 오후 4시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세계부티화장품협회 창립식에 참석해 남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산업에 대해 홍보하고 협회와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세계부티화장품협회는 국내외 뷰티 화장품 건강전문가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뷰티화장품 제품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창립했다. 세계부티화장품 협회는 앞으로 대한민국 화장품 제품

의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보좌진들과 저녁간담을 갖고 남원시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 시장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바쁜 일정이었지만, 시기적으로 남원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며,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주택 무너져 힘들어하는 주민을 위해

임실 환경보호운동본부, '사랑의 집짓기' 준공식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임실지부(회장 박만식)는 지난 25일 '사랑의 집짓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회원들은 재능 및 자재 기부를 통해 지난 8일 차공해 20㎡ 주택을 신축하고 준공 기념으로 팔죽 나눔 행사를 열었다.

심민 군수, 문영두 군의장 이환기 신덕연장, 회원 및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해 노후된 주택이 붕괴돼 행랑채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오공리 하촌마을 운모씨를 관촌면 맞춤형 복지팀이 사례관리 대상으로 발굴했다.

민·관이 모여 2회에 걸친 회의와 희망복지지원단의 솔루션 과정을 거쳐 민간단체와 연계, 수혜자로 최종 선정됐다.

또한 이도건 추사사무소(건축사

김중수)는 건축설계 및 인허가를 지원하고 거산레미콘(대표 박문수)은 레미콘을 무료로 후원했다. 마을 주민들은 주방기구와 생활 용품을 지원하는 등 갑작스런 사고로 실의에 빠진 운씨를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았다.

심민 군수는 "생업을 이어가며 지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해 이웃을 돌보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착에 기틀을 마련하는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만식 회장은 "모두가 함께 사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는 민·관이 따로 없다"며 "어려운 지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최근 인도와 차도에 무분별하게 범란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근절에 임실군이 팔을 걷고 나섰다.

군은 내달 28일까지 불법 현수막 및 광고물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하고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에 나선다.

행락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불편함을 주고 운전자와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도로변 및 차도에 불법 게첨된 상행위를 비롯한 음란·퇴폐적 유동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또한 고정광고물 중 낙하 위험, 낡고 오래된 간판, 연결 부위 취약, 불법간판 등의 정비도 병행 추진한다. 군은 불법 현수막이 자주 게첨되는 군청 앞과 임실읍 버스터미널에 현수막 게첨대를 설치하는 한편 주기적인 도로 순찰과 정비를 통해 지난해 불법 광고물 3천500여점을 정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NH농협 순창지부 농촌일손돕기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한 재현)은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 자매결연체인 동계면 현포마을(이장 박 명문)을 찾아 상호 우의를 다지는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마을 낱겨 경로당 공동급식을 쌀과 과일을 전달하고 가뭄과 일손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현장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자매결연체인 동계면 현포마을은 NH농협 순창군지부 한재현 지부장이 지난해 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되어 마을 회관에 노래방기 지원하는 등 그동안 상호 결연체로서의 상호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순창=이양원 기자

'높은 경제성' 순창 블루베리 어울마당 '큰 호응'

7000여명 방문 생과만 2.5톤 팔려... 총 6400만원 상당 판매

순창 블루베리 어울마당이 지난주말 7천여명이 방문하고 블루베리 생과와 가공품 6,4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성 높은 행사로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블루베리 생과만 2.5톤이 판매됐다. 군은 특히 블루베리 생과와 가공품 판매액만 6,400만원으로 순창블루베리의 홍보효과와 지역 내 식당 등 골목 상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블루베리 어울마당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행사장소를 기존 구립삼각포 시장에서 고추장 민속마을로 옮겨 관광객들과 군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 점이다.

실제 올해 블루베리 어울마당은 지난해 판매액 2,000만원보다 4,400만원이나 더 팔리는 신장세를 보였다. 장소를 더불어 올해 블루베리 어울

마당은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해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행사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4가지 테마별로 행사를 진행했다.

배울마당에서는 블루베리 품종 특성 설명회가 진행돼 농가의 블루베리 성공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가 됐다.

즐길마당에서는 분양농장 수확체험과, 보물찾기 행사, 옛놀이 체험, 블루베리 비누만들기, 블루베리 화분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블루베리 와인, 식초제형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렸다.

파는마당에서는 블루베리 생과를 중심으로 블루베리 생과를 중심으로, 가공품, 블루베리 인절미, 초코파이 등 다양한 가공품이 선보여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뜯뜯마당에서는 블루베리 품종전시회, 치유농업전시, 치유농장 소개 등이 진행돼 순창반의 치유농업을 알리

는데 도움이 됐다.

이외에도 고추장민속마을 이근에 위치한 발효소스토글 미디어아트존이 시범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며 합격점을 받았다.

군은 이른 더위로 방문객이 축제장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는 점 등 올해 행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행사를 더욱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블루베리 어울마당은 판매행사는 물론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지역의 대표 특산품이 순창 블루베리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행사였다"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앞으로도 내실 있게 추진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성 높은 행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빈용기 회수 통한 재활용 촉진 나서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7년부터 바뀐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시민참여를 통한 빈병 회수와 재사용 촉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 소매점이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제도로 201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구병과 신병으로 바뀌며, 신병의 경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특히, 신병과 구병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음료 제품(사이다, 콜라 등)에 경우에는 용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빈 용기 병목에 보증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보증금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구병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며 보증금 금액 표시가 없는 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빈 용기는 대형매장용·일반매장용 구분 없이 소매점에 반환이 가능하다. 유증음식점용 빈 용기는 소매점에서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빈병의 파손이 확인되거나 소비자가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반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소매점에서는 빈 용기 반환 요일이나 시간을 특정해서는 안되며, 빈 용기 반환을 거부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빈 용기를 반환하려는 자 역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빈 용기를 매점매석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타 빈 용기 보증금 관련 필요사항은 홈페이지(www.kora.or.kr) 또는 빈 용기보증금 상담 센터(1522-008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구림면 회문산 해원제 추진

제12회 회문산 해원제가 지난 25일 구림면 안정리 회문산 비목공원 위령탑 광장에서 황숙주 군수, 김중섭 군의장, 강보춘단체 대표와 주민 150여명이 참석해 가운데 진행됐다.

회문산 해원제는 6. 25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로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의 명복을 기원하고 화해와 용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난 2011년을 끝으로 중단 됐다가 올해 구림면과 구림면장년회가 주관해 행사를 부활시켰다. 행사는 기관장 및 유족들의 분향 및 헌화, 추념사 및 추모사, 헌신낭독, 진혼무 공연, 비목제창, 조총발사 순으로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